

## 성대구증 또는 성대위축증의 Artecoll 주입술 효과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치료실<sup>1</sup>,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sup>2</sup>

윤영선<sup>1</sup> · 여진하<sup>1</sup> · 손영익<sup>2</sup>

### 목 적

성대구증 및 성대위축증으로 인한 성대폐쇄부전(glottal insufficiency)에서 Artecoll을 사용하여 성대주입술을 시행한 후 음성 호전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 방 법

2009년 8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성대구증 또는 성대위축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Artecoll 주입술을 시행한 후 3개월째 경과 관찰을 하여 시술 전후의 음성 상태를 확인하였다. 대상환자는 총 38명으로, 성대구증은 25명(남자 22명, 여자 3명)이고, 성대위축증은 13명(남자 11명, 여자 2명)이었다. 연령은 22세부터 86세로, 평균 54세이었다. 주관적 평가는 환자 스스로 음성문제 정도를 측정한 VHI 설문과 언어치료사에 의한 청지각적 평가 GRBAS를 이용하였다. 객관적 평가로는 MDVP를 이용한 음향학적 검사(jitter, shimmer, NHR, SFF)와 MPT를 측정하였다.

### 결 과

VHI 총점은 평균 57점에서 40점으로 시술 후 뚜렷하게 감소하여, 시술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GRBAS에서는 G(total

grade)와 B(breathy)에서 뚜렷한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strained)는 시술 전 일부(8명)에서 이차적 근긴장이 동반되었을 때 증가 소견을 보였다가, 시술 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음향학적 검사 중, jitter, shimmer, NHR에서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알려진 정상기준치 SFF에 비해 술 전에 높은 음도(150 Hz)를 보였고, 시술 후 약간의 감소를 보여 보다 안정적인 음도(144 Hz) 사용을 보였다. 시술 후 MPT가 평균 10.11 sec에서 11.77 sec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 결 론

성대구증 및 성대위축증을 대상으로 Artecoll 주입을 한 후, 환자 및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서 호전을 보인다면, 일차적으로 시술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겠다. 또한 시술 후 음향학적 음질 평가(jitter, shimmer, NHR)에서 호전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SFF의 안정 및 MPT의 증가를 보인다면, 발성 개선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검사는 시술 후 3개월 경과 시 비교한 것으로, 향후 장기 추적으로 호전 양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겠다.